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27주일
제31권 45호(가혜) 2011.10.2

[묵상]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입니다.
손수 일구어 울타리를 치고 가꾸시어
그 안에서 소출을 얻고자 하시지만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소출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 버립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의 아들까지 보내어
그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렸지만
그들은 상속자마저 처단함으로써
주님의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차지였던 주님의 포도밭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보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머릿돌이라던 그들은 버려지고
그들이 보잘 것 없다고 내버린 돌이
주님 나라의 머릿돌이 됩니다.
그들 눈엔 버려진 쓸모없는 돌이지만
주님께겐 머릿돌도 쓰일 귀한 돌,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주님이 귀중한 머릿돌입니다. -櫃-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에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유지숙 그레이스 & 제프리 마티네스, 이정숙 루시아, 홍광선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홍정자 테레사
주 일	(연) 오진 베드로, 민소예 모니카,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반치우 안셀모, 엄은섭 도로테오, 오장규
낮 미사	(생) 이용식 베드로,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대건희 가정, 송재원 리오 & 송은영 소피아, 조혜진 리디아 & 조혜운 테레사,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병옥 올리비아 & 애나 & 린다 & 엘리스,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홍석인 체칠리아, 한정희 프랑카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1-7

화답송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주 님 의 포도밭 은 이스라 엘 집안 이 라 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6-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33-43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4	186	187
봉헌	259	264	254
성체	287	307	304
파견	394	321	32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서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자주 하느님은 불필요하다거나 낯설다고 느끼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 6,68) 을 가지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하느님을,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고자 (요한 10,10 참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계시 현장) 에서 하느님 말씀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까지

3.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관한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로써,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에 관한 지난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이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의 온 역사에서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고,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을 듣고 기념하고 연구함으로써 자라납니다. 최근 몇십년 동안 교회의 삶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교 계시와 살아 있는 전통과 성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민감해졌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레오 13세 교황께서 재임하시던 때부터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한 개입들이 증가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의 반포였습니다.

이 현장은 교회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 이 문헌이 주석적, 신학적, 영적, 사목적, 교회 일치적 차원에서 교회의 삶에 끼친 큰 유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공의회 이후 기간 동안에 “계시의 삼위일체적이고 구원사적인 지평” 에 대한 인식도 커졌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개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 이 되십니다. 교회는 중단 없이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징과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돌아가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계시를 완수하셨다.” 고 선포합니다. <◆계속>

욕심의 결과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에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몇 톨의 동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더 많이 나오게 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졌고 샘물은 말라 버렸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이러한 욕심이 나옵니다.

주인은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우는 등 포도 수확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는 소작인들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이 멀리 있어 못 돌아올 줄 알고 그 밭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매절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야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작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일구는 포도밭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못된 소작인의 모습과 위의 예화인 욕심 많은 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실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족, 재산, 친구, 지금의 모습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기에 불평과 불만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까.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레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자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P.V.구역

◆병자 영성체 : 7일(금) 오전 10시부터

◆ 새 예비자를 봉헌합니다.

시월은 목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본당 설립30주년의 해인 올해 이제 두번째 새로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 환영식 : 2011년 10월3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960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엄회, 요셉회, 대건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 레지오마리에 이어 이번 주일은 빈첸시오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0월2일 : 빈첸시오 ▶ 10월9일 : 배론청년회
- ▶ 10월16일 : 성령기도회

◆ 백삼위 골프토너먼트

- 일시 : 10월8일(토) 오전 8시 성당 집합
- 장소 : Mt. Meadow Golf Course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신영세자 첫교해

- 일시 : 10월12일(수) 오후 8시 2층 교리실
- 대상 : 지난 9월18일(본당의 날)에 세례받으신 분들
- 대부모님들은 대자녀들이 고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과 주최 '연방정부 건강보험 세미나'

- 일시 : 10월9일(주일) 11시미사와 친교점심 후 오후 1시30분 강당
- 내용 : 미국의 은퇴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메디케어) 올바른 가입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 : 수호천사보험 *문의: 차인수 안드레아 ☎256-6001

◆ 제대회 모임

- 일시 : 10월16일(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회의실(사무실앞)
- 제대회원 전체모임(점심식사와 함께)을 갖고자 합니다.
- 연락처 : 제대회장 오창애 안나 ☎(310)974-2857

◆ 토요일특전(청년미사)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 자격 : 사우스베이 거주자로 신앙 깊은 청년 피아노반주자
- 문의 : 김기석 바오로 배론청년회 밴드부장 ☎(310)713-3329

◆ 2012년 본당 새해달력 광고 스폰서 선착순 신청받습니다.

- 신청 : 10월9일(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선착순 접수

◆ 성모회 김치병 수거합니다.

- 김치판매 일시 : 10월29/30일(토요일특전, 주일미사)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본당의 날 기념 친환경 녹색 장마구니 전신자에 선물

- 아직 받지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2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 10월9일(주일) : 하버/카슨구역(북어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금동균	김낙기	김성현	김우용
	김원호	김재영	김정희	김주량	김진숙	김찬구
	나경흠	박완철	소성덕	안민수	안연숙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윤석진	윤화경
	윤희동	이근태	이남현	이병우	이석진	이인두
	익명	임순	정열모	정혜영	최길주	최수현
	최의수	최진수	최태훈	한금순	합계 :	\$3,805
미사헌금 : \$2,709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김낙기	김우용	김원호	김정희
	김주량	김찬구	나경흠	소성덕	안민수	안연숙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유영균	윤화경
	이근태	이남현	이병우	익명	임순	정열모
	정혜영	최길주	최의수	최진수	최태훈	한금순
					합계 :	\$2,635
감사헌금 : 유석영						
주보광고후원 : \$100						

공지사항

◆ 청소년분과 연합 모임

본당 사목회 청소년분과에서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 그리고 청년회 등 함께 모이는 연합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는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일) 오후 4시~10시
- 장소 : 남성철 베네딕도 청소년분과장택 ☎(310)408-1443
29428 Whitley Collins Dr. R.P.V., CA 90275

◆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 11월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퀴즈범위 : 모세 오경
- 상금 : 어마어마함!
- 출전선수 : 7명
- 본당문의 : 배론청년회장 박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328-0847 10/14(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조해정 마리아 213-703-8122 10/7(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0/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10/8(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윤선희 토사 381-9489 10/17(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정숙 수산나 320-0855	신성주 엘리사벳 850-0188 10/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0/13(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424-400-4228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0/15(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0/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10/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2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10/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윤혜영 클라라 902-5091 10/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신앙인은 모든 매체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필터'를 끼워서 영화를 감상한다면 말입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영화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0월 일정 : 두번째 토요일(8일) 오전 10시~2시
- 상영영화 : 선물(The Gift : 이정재, 이영애 주연)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성모기사회 북미주 지도)
- 피정비 : \$20(차와 김밥 제공) * 문의 : ☎(310)324-8159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2

더욱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22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자 25세 이상 미혼 가톨릭신자
여자 23세 이상 미혼 가톨릭 신자
- 장소 : 성 토마스성당(412 N.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
- 신청마감 : 10월9일(주일) 선착순 남녀각각 30명
- 문의 : 김민정 첼리나 ☎(213)247-4341

◆ 성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동계 선교활동: 뉴올리언스

- 일시 : 12월11일~17일
- 대상 : 대학생/청년
- 신청마감 : 10월 23일까지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 ☎(323)734-4946

묵주 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묵주기도 성월의 기원과 의미

묵주기도 성월은 다른 성월과 마찬가지로 그 달의 중요한 축일과 연관하여 제정되었다. 전례력에 의하면 10월 7일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다.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마리아 축일로 정해진 계기는 약 400년 전의 사건에 의해서이다. 즉 1571년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로사리오의 성모님의 도움으로 레반트 해전(1571. 10. 7)에서 터키 함대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교황 비오 5세는 성모님의 원조를 부탁하고 당신 자신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바치게 하고 또 병사들에게도 묵주를 주어 기도하게 하였다.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에게로 돌아갔고, 이에 베네치아의 원로원은 연합제국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대승리를 안겨 준 것은 장병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순전히 묵주기도의 성모님이다." 이를 계기로 다음 교황인 그레고리오 13세가 성모님의 원조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묵주기도의 축일을 10월의 첫째 주일로 정했다. 그 후 19세기에 교황 비오 9세 및 레오 13세 교황은 묵주기도에 대한 회칙을 내고, 특히 10월을 묵주기도의 성월로 정하여 신심을 격려했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은 우리로 하여금 묵주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살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전적인 순명과 희생으로 동참하신 성모 마리아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구원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쇠신하기 위해 묵주기도 성월이 제정된 것이다.

▶묵주기도의 의미

로사리오(Rosarium)는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로 묵주 또는 묵주기도를 가리킨다.

묵주기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이 선교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여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나타나 묵주를 주시고 묵주의 기도를 널리 전하라고 하셨다는 설, 도미니코회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과 성모송을 합송하였던 설교 방식에서 유래한다는 설,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에서 시편의 권절을 읽는 대신 주님의 기도 150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관습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렇듯 묵주기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 내에서 신

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왔고 여러 교황들에 의해 권장되었다.

묵주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정해진 것은 1569년 교황 비오 6세의 칙서에 의해서이다. 이 표준에 따르면 묵주기도는 소리기도(염경기도)와 마음기도(묵상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리기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이 합해 1단을 이루고 이것이 모여 5단 또는 15단이 된다. 그리고 마음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소리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신비에 일치하신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Marialis cultus"에서 묵주기도를 복음적 기도라 부르고 묵주기도의 핵심은 관상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상 없는 묵주기도는 혼이 빠진 몸이며, 그렇게 되면 묵주를 손가락 끝으로 넘기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다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헛소리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묵주기도의 신비의 묵상은 미사의 훌륭한 준비가 되며, 미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묵주기도 바치는 것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심의 하나이다. 성모님께서도 세계 곳곳에 발현하실 때마다 인류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셨다.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

묵주기도 성월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고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는 신앙인은 먼저 구원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다가오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모님의 모범과 도움을 힘입어 효성스런 자녀로 충실히 머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나와 이웃의 회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요,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성실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